

#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중 10명 총선 공약이행정보 공개 안한다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역단체장 100%·기초장 96% 공개와 판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9명(김선동 의원 제외) 중 10명(52.6%)이 18대 총선 공약이행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제18대 총선에 당선된 광주·전남 국회의원 19명 등 지역구 국회의원 237명에게 13일까지 공약이행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결과, 125명(52.74%)만이 자료를 공개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보 공개의 소극성은 광역단체장 16명 전원(100%)이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했으며, 기초단체장 214명 중 206명(96.26%)이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공개한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라고 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비판했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자료 제출비율은 47.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총선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은 김영진·강기정·김동철·이음섭·박지

원·박상천·최인기·김영록·김효석·이윤석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공약은 부타이 아닌 공적 계약”이라며 “무작정 버티기로 보이는 목록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정치’라는 비난을 국회 스스로 자초하지 말고 대국민검증에 적극 나서주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07남북정상회담때 ‘남북FTA’ 추진 검토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당시 정부 내에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다. 참여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현종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사장은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최 ‘서울-워싱턴포럼’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난 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FTA 추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희 요청으로 고엽제 국내 반입” 장세환 의원 주장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4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고엽제가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한국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제출한 ‘미(美) 초목통제계획 CY68 최종보고서(69.1.2)’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당시 정일권 총리의 승인(1967년 9월 20일)으로 1968년 3월 20일부터 관련 제조 장비 및 물자가 국내에 반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입된 고엽제는 1969년 4월 15~5월 30일, 69년 5월 19일~7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일대 2만794에이커(8413만5168㎡)에 살포됐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라보는 하지만..

### 서울대생 “대통령감 손학규·당선가능성 박근혜”

#### “절대 대통령 돼선 안될 인물 1위” 박근혜

서울대 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대선 후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크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14일 서울대 학내 언론인 ‘서울대저널’이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달 12일까지 재학생 660명을 표본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

장 많은 18.3%가 손 대표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16.4%)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9.2%)는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는 응답도 23.8%나 됐다.  
‘당선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항목에서는 박 전 대표라고 답한 비율이 51.6%로 손 대표라고 답한 비율(14.8%)을 크게 앞섰다. 박 전 대표는 ‘절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 항목에서도 18.1%로 1위를 차지했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

으로는 58%가 ‘사회통합 및 포용 능력’을, 16.4%는 ‘국가비전 제시’, 10.3%는 ‘정책 추진력’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는 ‘양극화 해소’ 28.6%, ‘경제성장’ 18.3%, ‘대북관계’ 1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한나라당이 2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16.7%, 진보신당 12.6%, 민주노동당 4.1%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민주당이 23.7%로 나타나 한나라당(17%)과 순위가 달라졌다.  
아권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60.8%)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8.5%)보다 많았다. /박지경기자 jkpark@

# 그리스 ‘제2 리먼사태’ 우려

## S&P, 신용등급 ‘CCC’로 3단계 하향조정

### ‘디폴트’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3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CCC’로 3단계 하향조정하고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리스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S&P는 성명에서 그리스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채무조정은 자사 기준에 의한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등급 강등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방안 중 하나로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투자자들의 참여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S&P는 민간투자자들의 ‘자발적인’ 만기연장 역시 “채무자가 원래 조건에 의한 의무보다 비용을 덜 치르는 만큼 S&P 기준에 따르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채권 트레이더들과 유럽 중앙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리스에 대한 채무 조정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처럼 투자자들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리스에 대한 2차 지원에 민간 채권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관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그리스가 제2의 리먼이 될 수 있

다는 우려가 더 자주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피치의 국가신용평가 책임자 데이비드 필리는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독일 주장대로 민간 채권단이 그리스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게 될 수 있고 이는 스페인과 다른 국가에도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채무에 시달리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의 국채는 물론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미국과 신용국 시장의 주식 등 유통성이 좋은 자산까지 팔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이 망한 후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 알프스산 2개봉 1억9천만원에 팝니다

### 그로세 키니가트·로스코프 헐값 매물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알프스산 봉우리 2개가 합쳐서 2억원도 안되는 값에 매물로 나왔다.

13일 오스트리아 부동산 공기업 연방부동산법인(BIG) 웹사이트에 따르면 티롤주 동부에 있는 해발 2000m대 알프스산 봉우리 ‘그로세 키니가트’와 ‘로스코프’가 합계 12만1000유로(1억9000만원 상

당)에 올라 있다.

BIG는 이 매물에 “카니 알프스(동부 알프스 산지)에서 가장 멋진 풍경으로 등산객과 암벽등반가들에 인기가 많은 곳”이라는 설명을 달아 놓았다.

매일 희망자는 다음달 8일까지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봉우리가 팔리더라도 새 주인에게 관광

객 등의 통행 제한은 불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카르티지 주민들은 매각 방침에 분통을 터뜨리는 등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A뉴스통신이 보도했다.

요세프 아우세를레슈너 시장은 “왜 봉우리를 급하게 팔려는지 의문”이라며 “그리스가 섬을 판다더니 오스트리아에서는 산을 내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性的 피해 미성년, 성년후 손해청구 가능

### 민법개정안... 불법행위 손해청구 최장 20년으로 연장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피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 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인가 요청을 갖춰 신청하면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현재 민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60일을 초과해 체납한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연합뉴스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 광주1등맛집 • 다담회 한국맛집 •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 광주은행 소호명가

##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리 역시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시청  
지하철 호대역 3.4번출구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